

복식에서의 굿 디자인의 정향점에 관한 소고

— 열린대화주의 디자인을 제안하며 —

양리나·김문숙*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부, 서울여자대학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한국사회도 후기 산업사회의 논리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가치와 생활 양식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 소고는 우선 후기산업사회의 논리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형태 사이의 복잡한 연관관계들이 복식 디자인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 다음 디자인 영역에서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바우하우스와 비교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들과 그 정향점을 비판하기 위해 우리는 적절한 예들을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바우하우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곧 ‘열린 대화주의 디자인’이라는 제3의 디자인 개념을 소개, 제안하려는 것이다.

결국 열린 대화주의 디자인은 모던디자인으로의 복귀도 아니며 포스트모던디자인의 계승도 또한 아니다. 그것은 모더니즘의 기능성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심미성을 동시에 내포한 그래서 기능성과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으면 허용하는 기능성과 열린 대화를 하는 심미성이 표현될 때 바로 그러한 디자인이 굿 디자인인 것이다.

The Thesis on the Criteria for the Good Fashion Design

— An Introducing for the Open Dialogism Design —

Lee-Na Yang and Moon-Suk Kim*

(Dept. of Mode & Textile-Design, Paichai University
Dept. of Mode & Textile-Design, Seoul Womans University)

The value orientations and life styl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postmodern societies have been expanding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concerns with the postmodernism in fashion design, at first,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the logic

of post-industrial society and the culture dynamics of postmodernism will be explained, of course in our especially concerned area fashion design. Then the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in the comparison with the Bauhaus which represents "modernism" in design areas, will be critically identified, and some significant examples which we select in order to identify and criticize the basic elements and orientations of postmodern design will be analyzed in details.

We will, finally, make a new perspective which is beyond Bauhaus and postmodernism, namely 'open dialogism design'. But in the boundary of its introduction. Ultimately, open dialogism design is not returning to modern design and not succession to postmodern design either. Open dialogism design, contains functionalism of modern design and estheticism of postmodern design at the same time, so permits estheticism whenever it is not fully exclusive from the functionalism. And that is a good design when the estheticism, which is open dialoguing with the functionalism, is expressed.